

와즈카텐만구 신사

와즈카텐만구 신사는 천 년 이상 전부터 중요한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와즈카초에서 가장 큰 신사로, 학문의 신인 텐진(天神)이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는 풍작에 감사하는 축제가 크게 열립니다.

역사

정확한 창건 연도는 불명이지만, 한 설에 의하면 10 세기 후반에 엔유 천황(959~991 년)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845~903 년)의 초상화를 봉납한 것이 시작이라고 전해집니다. 미치자네는 고위 정치가이자 뛰어난 학자이자 시인이었지만, 정치적 적들의 음모로 인해 불행하게도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치자네가 사망한 후, 자연재해와 각종 불행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실의에 빠져 세상을 떠난 미치자네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치자네의 생전 업적이 인정받아 그를 텐진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 후부터 그의 영혼도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와즈카텐만구 신사는 장원을 통해 유력 도시의 문화와 종교가 지방으로 전파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10 세기에 와즈카는 나라(奈良)에 있는 고후쿠지 절의 장원이었기 때문에 고후쿠지의 수호신인 가스가 묘진(春日明神)을 모시는 신사가 창건되었습니다. 12 세기에 들어와 와즈카가 교토의 텐진 총본사인 기타노텐만구 신사의 장원이 되면서 텐진 신앙이 장려되었는데, 이것이 와즈카텐만구 신사 창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내

본전은 1348 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비대칭의 맞배지붕이 특징인 나가레즈쿠리 양식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전(社殿) 주변에는 텐진의 사자인 소 동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전 앞 배전에는 큰 에마(소원을 빌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봉납하는 나무패)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856 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전 양쪽에는 작은 말사(末社) 4 동이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 3 곳은 일반적인 신들이 모셔져 있지만, 본전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고료(御霊) 신사에는 텐진 신앙과 관련된 특별한 인물이자 유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노령의 체관, 와타라이노 하루히코(度會春彦)가 모셔져 있습니다.

참배길 남쪽에는 번영과 상업의 신인 에비스(惠比寿)를 모신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붉은색 다리를 건너면 우메미야 신사, 구마노 신사, 그리고 더 안쪽에는 교토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가스가 신사가 있습니다. 경내에 여러 개의 말사가 있어 참배자는 한 곳에서 많은 유명한 신들에게 참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축제

와즈카텐만구 신사의 예제는 10 월 둘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행됩니다. 오후 2 시에 궁사(宮司)가 와즈카 지역의 풍작에 감사하는 제사를 시작합니다. 성인 남성이 메는 큰 신여 1 기와 아이들이 메는 작은 신여 2 기가 신들을 기리며 경내를 행진합니다. 경내에는 다양한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축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시는 길

‘히가시와즈카(東和東)’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약 2 분 자동차 및 자전거 주차장 있음.